

‘80년 택시운전사’가 ‘오월 화가’로...“광주 기억되길”

장훈명 5·18민주기사동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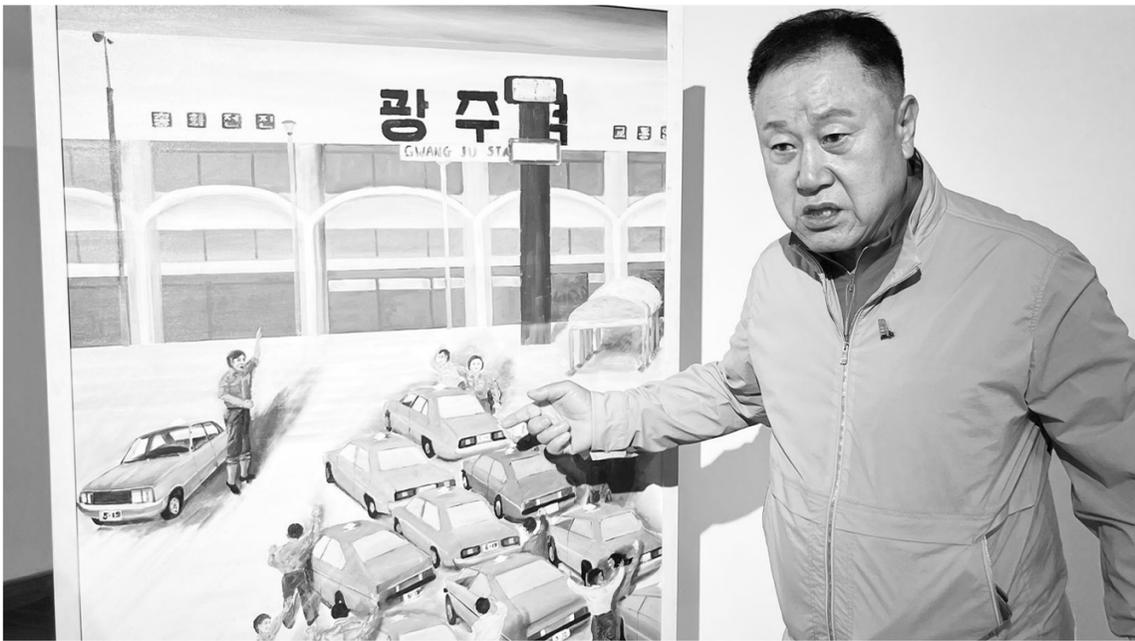
5·20 임동-금남로 차량 시위 주도 계엄군에 체포, 무차별 구타 당해 미술활동 몰두하며 트라우마 치유 5·18자유공원 ‘이팝나무’ 특별전시 “불의에 맞선 ‘광주정신’ 전승 노력”

“배움은 조금 부족했는지 몰라도, 불의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굳건했죠.”

8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5·18자유공원 ‘이팝나무 아래 흘러가는 시간’ 특별 전시장에서 만난 장훈명(73) 작가는 1980년 5월, 계엄군의 군화발이 도심을 피로 물들였던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고 있었다. 장 작가는 5월20일, 임동-금남로 일대에서 벌어진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로 현재 5·18민주기사동지회장을 맡고 있다. 영화 ‘택시운전사’ 속 서사에 영감을 준, 말 그대로 ‘진짜’ 택시운전사인 셈이다.

그는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의 폭력 진압을 피해서 환자로 위장한 대학생 승객과 화순으로 향하던 길에 들은 그들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했다”며 “배움이 짧아 세상 돌아가는 건 잘 몰랐지만, 분노가 치밀어 곧장 광주역으로 달려가 동료 기사들을 불러 모았다”고 회상했다.

장 작가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은 시민들을 구하자고 합심해 맨몸으로 금남로에 몰려갔지만, 무장한 계엄군과의 힘의 차이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그들은 유일한 생업 수단인 택시를 몰고 무등



8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자유공원 ‘이팝나무 아래 흘러가는 시간’ 특별 전시장에서 장훈명(73) 작가가 1980년 5월19일 광주역 앞에서 택시기사들을 불러 모았던 당시의 상황을 그린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장에서 다시 모인 뒤 차량 시위에 나섰다.

그는 “시민들을 태운 시내버스가 앞장서고, 40여대의 택시가 줄지어 뒤따랐다. 금남로에 다다르기까지 차량들이 하나둘씩 합류하면서 어느새 거대한 행렬이 만들어졌다”면서 “경적을 울리며 라이트를 켜고 거리에 진입하자, 시민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를 맞았다.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눈가를 흘렸다.

그러나 감동의 순간도 잠시, 계엄군이 최루탄을 쏘아대며 상황은 급변했다. 차 한 대당 군인 7~8명이 달려들어 유리창을

깨고, 택시기사들을 끌어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장 작가는 당시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온몸이 피범벅이 돼 계엄군에게 끌려갔다가, 경찰이 빠져나갈 틈을 알려줘 주변에 있던 몇 명과 함께 도망쳤다”며 “광주의 상황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후 오월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데 일생을 바쳐온 그는 3년 전부터 미술 활동에 몰두하며 작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직접 목격한 역사적 현장을

그림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장 작가는 “학창 시절 각종 미술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두각을 나타냈지만, ‘환경이(화가를 낮춰 부르는 말)는 굶어 죽기 딱 좋다’며 완강히 반대하신 아버지의 뜻을 넘기는 못했다”며 “수십년만에 다시 잡은 붓이 지금의 나를 살아 숨 쉬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이 주최·주관한 그의 특별 전시는 이날부터 오는 7월28일까지 두 달간 5·18자유공원 내 3개 동에서 열린다. 그날의 참담한 현실을 시간대 별로 묘사한 장 작가의 유화 20점과, 그 경험을 하지 못한 문학 작가 박진영씨가 장 작가

의 그림을 보고 써 내려간 글이 함께 전시된다. 해당 전시는 이팝나무로 상징되는 1980년의 기억을 흘러간 시간의 경계를 넘어 오늘의 언어로 다시 마주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는 “운 좋게 미술대전 등 여러 전국 단위 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서, 5·18기념재단으로부터 전시 요청을 받았다”면서 “박진영 작가의 훌륭한 글과 함께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참 영광이다.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장 작가는 앞으로도 광주의 기억을 그림으로 남기는 작업에 힘써 계획이다. 자신의 경험은 물론, 오월 당사자들이 겪은 고통과 저항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불의에 맞선 광주정신이 후세대에 널리 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을 겪으며, 오월열사들이 오늘을 지켜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과 구술의 힘은 희미해질 테고,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남게 될까 두렵다”며 “그 시대를 살아낸 지역민들의 기억에 대한 그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내 경험뿐 아니라 많은 시민의 이야기도 함께 전시해 보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팝나무 아래 흘러가는 시간’ 개막식에서는 장훈명 작가의 트라우마 치유 과정 속 창작 이야기와 그의 작품 세계를 직접 들을 수 있다. 또한 5·18사적지 제17호인 상무대 옛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 해설 투어도 함께 진행된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북구 청년 공직자들 ‘오월’ 특색사업’ 눈길

‘오월의 외침...’ 주제 6개 사업 주먹밥 DAY·오디오 방송 운영

광주 북구 청년간부회의가 오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특색사업을 펼친다.

8일 북구에 따르면 제31기 청년간부회의 주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월의 외침, 이어지는 메아리’라는 주제로 6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5·18 통화연결을 송출 △현열캠페인 및 현열증 기부 △5·18 민주묘지 참배 △주먹밥 DAY 운영 △오디오 방송 리마인드 5.18Hz △5·18 사적지 도보순례 및 줌깅 등으로 구성돼 45년 전 광주를 기억하고 뜻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달 말까지 구청과 통화 연결 시

5·18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현열캠페인 및 현열증 기부 활동을 진행한다.

9일에는 청년간부회의 및 신규 임용 공직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 및 참배하고 묘비 닦기, 손태극기 꽃기 등의 활동을 통해 민주 영령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북구청 구내식당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과 주먹밥을 만들고 나누는 ‘주먹밥 DAY’를 운영해 5·18 당시 시민들이 함께 나눴던 주먹밥의 의미를 상기하고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기념일에 하루 앞선 17일에는 북구 소재 5·18 사적지 4개소(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역 광장, 무등경기장 정문, 옛 광주교도소) 일대를 도보 순례하며 환경정비를 하는 ‘줌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오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18분에 구청 청사 내 5·18 관련 내용의 오디오 방송을 송출해 45년 전 광주의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오디오 리마인드 5.18Hz’도 추진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해로 제45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북구 청년 공직자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45년 전 5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민주 영령들의 존엄한 정신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 청년간부회의는 6급 이하 젊은 공직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자율적인 구성 연구, 특수 시책 발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조직에 유연함과 생동감을 불어 넣고자 지난 1996년 처음 시작돼 30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정승우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 재판 지연과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법원 ‘정의’ 운운할 자격 있나”

일제강제동원 재판 줄줄이 ‘지연’ 이재명 선거법 정치현안 ‘속도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대법원이 역사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정 정치 현안은 적극 개입해 속도전을 하는 ‘선택적 정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 재판 지연과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현재 대법원에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양금덕 사건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강제징용 피해

자 이춘식 사건과 관련한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강제매각 사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며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3년이 지나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도 9일 만에 처리하는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의 사건은 묵히고 있다”며 “대법원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판결을 지체하며 전범기업들에게 훌륭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며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정승우 기자

광주경찰, 카카오택시에 ‘범죄 예방’ 영상 송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등

광주광역시경찰청이 카카오택시에 치안 정책을 홍보하는 영상을 송출한다.

광주경찰은 카카오톡모바일리티 및 파트너사 GJT모바일리티와 협업해 전국 카카오톡 블루 택시 승객용 모니터(10·13인치)를 통해 치안 시책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택시라는 일상 교통수단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교통안전, 댄페이크 등 다양한 범죄 예방 정보를 시민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카카오톡 블루 택시를 통해 하루 2만 회 이상 관련 영상이 송출될 예정이다.

우선 5월 한 달간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

고 있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과 AI 기술을 악용한 ‘댄페이크’ 범죄 예방 홍보 영상이 상영된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단순한 교통수단 제공자가 아닌 시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면, 가장 먼저 범죄 현장을 마주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성주광주경찰청장은 “모바일리티 플랫폼의 기술력과 공공기관의 사회안전망이 결합돼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